

붓을 움직이는 건 손이 아니라 마음

장애 없는 교감, 격의 없는 대화 석창우 + 여태명

‘장애 아티스트’와 ‘비장애 아티스트’의 만남 — 장애와 예술을 아무런 ‘장애’ 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두 예술가가 만났다. 사고로 양팔을 잃은 뒤 붓을 이용한 필묵 크로키를 개척한 화가 석창우, 그리고 그에게 서예를 가르친 스승이자 예술적 동지이기도 한 서예가 여태명.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서로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그들의 살가운 대화를 함께 엿들어본다. 그들의 특별한 만남, 그들의 독창적 예술관, 그리고 예술로 승화된 장애의 감수성까지.

글 홍상희 편집부 | 사진 전석병



필묵 크로키 화가 석창우(왼쪽)와 서예가 여태명.

일 필휘지. 화가 금곡 석창우가 짧은 춤사위 같은 붓놀림으로 화선지 위에 선을 옮겨놓는다. 10초도 안 되어 완성한 그림 속의 사람은 살아 꿈틀대는 듯하다. 붓으로 크로키를 그리는 석창우는 벌써 18회의 개인전과 7회의 해외 초청전을 연 유명 화가다. 서예로 그림 공부를 시작한 그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고민 끝에 서예를 통한 문자추상과 인체 크로키를 시작했고, ‘필묵 크로키’라는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가 되었다.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붓을 잡는 석창우의 별명은 ‘후크선장’이다. 지난 1984년, 전기기사로 일하던 그는 22,900볼트의 고압전류에 감전돼 양

팔을 잃은 후, 갈고리 모양의 의수를 끼우고 생활한다. 오른쪽 의수에 끼운 붓으로 종횡무진 화선지를 누비는 작업에서, 그의 장애는 이미 창작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 처음 서예를 가르친 사람은 여태명이다. ‘민체’에서부터 한글 글꼴 개발과 연구 등 다양한 실험정신으로 서예의 영역을 확장시켜온 효봉 여태명. 그의 작업 또한 ‘가장 한국적인 것’을 고민하며 한글의 확장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창우의 작업과 닮은꼴이다.

“효봉 선생과 할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무뚝뚝하게 대담 요청을 고사하던 석창우는 여태



배경과 몸의 조건을 지닌 창작자로서 서로의 예술 세계와 감수성을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선생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상대가 스승이어서 ‘선생’이라 하고, 한쪽에서는 상대가 연상이라며 ‘선생’이라 부르는 두 사람은 (나이는 석창우 화백이 한 살 연상이다),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첫 만남을 회상했다.

석창우 시작은 우연이었어요. 사고를 당하고 요양차 전주에 가 있을 때 네 살짜리 아들 녀석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땐 글씨 쓰는 연습을 할 때였는데, 노트에 볼펜으로 그려줬죠. 사고 당하기 전에는 그림하고는 상관도 없이 살았는데 처형이 그걸 보더니 그림을 그려보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88년 2월이었나,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로 결심했죠. 화실 여러 군데에 전화하고 알아봤는데 양손이 없으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효봉 선생님에게 서예를 배웠던

사고로 팔을 잃은 뒤 붓을 잡기 시작해 필묵 크로키라는 독창적 영역을 개척한 석창우. '후크 선장'의 갈고리 같은 의수로 움직이는 그의 붓은 과감한 축약을 통해 강렬한 운동감만을 오롯이 화폭에 남겨 놓는다.

명 선생이 거명되자 밝은 목소리로 수락했다. 여태 명 역시 기꺼이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석창우 작업실을 찾았다. 제자와 스승에서 이제는 예술가 대 예술가로 마주 앉은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의 만남이 아니었다. '필묵 크로키 화가'와 '서예가'로서, 그리고 서로 다른

처형이 같이 가자고 해서 처음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연이 된 거죠. 다행이었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누구든 가르쳐주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효봉 선생님 같은 붓을 잡은 거죠. (웃음)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난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절대 포기 안 한다고. 처음에는 딱만 쓰는 사군자를 배우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군자를 하려면 글씨부터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태명 참 인연이란 것이 가만히 보면 우연이면서도 필연인 것 같아요. 일견여구(一見如舊)라는 얘기가 있지요. 처음 봤는데 오랫동안 본 사람 같이 뭐가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 선생이 작은 노트에 그림을 그려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물론 막막하기도 했지요. 먹을 갈 수도 없잖아요. 처음엔 안사람 되시는 분이 같이 오셔서 옆에서 먹을 갈아줬어요. 문제는 붓이었어요. 지금은 의수로 잡지만 그때는 할 수

없이 붓대에 구멍을 뚫어서 끼워 고정시켰어요. **석창우** 사실 입으로 하고 발로 하는 다른 장애 미술가들과는 다르게 하고 싶어서 의수로 해보자 생각했는데, 갈고리로 붓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 떨어지고 도망가고. 그런 데다가 서예를 하려면 직각으로 붓을 세워서 사방팔방으로 나가게 해야 하는데, 각도가 기울어져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선생님하고 고민하다가 각도가 맞게 붓대에 구멍을 한번 뚫어보자고 했잖아요. 먹을 가는 일도 효봉 선생님이 혼자 해보라고 하셨고, 나도 혼자 안 하면 내 작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로 먹을 갈았죠.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갈았더니 물집이 터지고. 그러다보니깐 괜찮아지더라고요. 마치 피 토하고 득음하듯이 남들이 손으로 가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렇게 글씨도 하고 사군자도 시작했어요. 효봉 선생님 같은 경우 모든 분야를 다 하셨어요. 회화 전공하셔서 회화도 하시고 서예의 각 분야, 한글, 사군자, 전각까지.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여태명 특출난 건 아니지만 동양예술 쪽은 손을 조금씩 대서 약간씩 아니까 하기가 좀 수월했던 거죠. 그래서 석 선생에게 맞는 필체를 지도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석 선생은 신체 조건상 줄 맞추어서 똑바로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광개토대왕릉비가 생각났어요. 그게 굉장히 육중하고 힘 있고 정교합니다. 꼼꼼하고 예쁘고 곧고 그런 게 아니라 필체가 텅텅하면서도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시작할 때 황산곡행서(黃山谷行書) 쪽으로 가도록 유도했어요. 옛날 서체 중 예쁘고 곱고 미려한 것도 있지만 황산곡 글씨는 굉장히 필세가 강해서 남성적이고 힘차거든요. 그렇게 필력을 키우면 그림 그리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하니까요. 그런 쪽에 중점을 뒀서 했죠. 그러다가 석 선생이 서울로 올라가게 됐고요.

석창우 전주에 오래 있던 것도 아니고 4, 5개월 밖에 안 있었어요. 그 사이에 선생님을 만나 배운 거죠. 서울에 올라가게 돼서 선생님이 다른 분을 소개해주셨는데 도저히 다른 분과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 잠깐 내려와서 선생님께 물어봤잖아요. 우편을 통해서라도 배울 수 없겠냐고. 기꺼이 허락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우편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내려가서 2, 3일 있다가 올라오고 했지요.

여태명 다른 분들이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상대방에 맞춰서 했어야 하는데 응용해서 가르치기가 힘들었던 거죠. 석 선생도 잘 안 맞으니까 힘들어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서 우편으로도 보내고, 작품을 잔뜩 해서 가끔 내려왔어요. 내가 그때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학생들이 많은 학원선생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재미있는 게, 밖에서는 학원생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원장실에 들어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 작품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생들은 왜 안 나오나 하고... (웃음) 참 정성이었어요.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 하지만 석 선생이 작품 하는 열정이 강했고, 나도 그 열정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해온 걸 내가 또 봐줘야지. 지금 생각하면 나도 열정이 있었죠.

석창우 그때는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안했어요.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감이 생기더라고요. 굳이 얼굴을 안 보더라도 전화로 이야기하면서도 딱딱 느낌이 와닿았어요. 글씨가 어떻게 예술이 어떻고 그런 얘길 안 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서예에 대한 고민이 풀릴 정도로 교감이 되고 통하더라고요. 잘 맞는 스승과 제자는 이렇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마웠던 게, 서예나 그림 하시는 선생들은 자기 외의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 선생님은 어디에 좋은 선생이 있으니까 가서 배워라, 소개해주고 하셨어요. 그런 게 엄청난 도움이 됐죠.

——여태명에게 수년간 지도를 받은 석창우는 본격적으로 한글 문자추상과 누드 크로키를 시작했



민체 개발 등 문자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서예가 여태명.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석창우를 만난 그는 오늘날까지 석창우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료가 되어왔다.

다. 그 과정에서 서예와 크로키의 기법을 응용해 ‘필묵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척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연필이나 펜, 목탄 등의 서양 재료를 써서 크로키를 그릴 때, 석창우는 가장 자신 있는 붓을 이용하고자 했다. 이는 평소 그가 주장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과도 닿아 있다. 여태명의 한글 연구와 필체 개발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적인 것을 예술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온 두 사람의 대화는 ‘우리의 것’이라는 화두에서 어느새 예술론으로까지 이어졌다.

석창우 내가 가장 잘 알고 항상 접하는 것이 한국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걸 찾자’ 생각한 것이 한철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내려온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죠. 예전에 한신대학교 김상일 교수의 <한철학과 퍼지논리>란 논문을 보게 됐어요. 거기에서 한철학을 세 부류로



해보니까 한글은 이리저리 뭉개더라도 그냥 뜻도 통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재미있어요.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 아니신가요?

여태명 맞아요. 91년도였나, 독일 베를린 교통역사박물관에서 한중일 서예초대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갖고 간 한문 작품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중국 글씨를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작품을 보여줬더니 뜻도 모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는 것, 우리나라 글씨라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존중하고 감탄한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한글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겠구나, 생각했지요. 그래서 연구한 것이 민체예요. 얼마나 좋아요. 한글에는 우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새다, 나무다, 이런 개별적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천지인을 본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주만물을 집약시킨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

해체를 해봐요. 나라는 사람은, 반듯하게 서 있어야만 여태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워 있어도 여태명이고, 앉아 있어도 여태명이지요. 웃을 때도 여태명, 찡그리고 있을 때나 짜증내나 다 여태명인 것이지. 그게 내 멋이지. 글자의 형태도 딱 하나일 수는 없다 싶어서 글자를 해체하고 조합하고 그랬지요. 조합해서 계속 쌓아놓고 뛰어넘고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서예라고 하는데 그 용어도 쓰기 싫어요. 문자예술이지. 한글도 될 수 있고, 한문도 될 수 있고, 일본의 가나도 될 수 있고. 그게 조형미술,

문자예술이잖아요. 제가 만든 민체도 마찬가지로요. 궁체는 예쁘고 곧고 줄 맞춰서 쓰지만, 민체는 개판이에요. 궁체는 정형꼴, 말하자면 바른 글씨고 민체는 비정형, 부정형 꼴이지요. 정형을 탈피했기 때문에 민간예술이라고 해요. 궁중예술은 표구돼서 표본이 되죠. 민간예술은 정말로 남녀노소 민간에서 각자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석창우 선생 크로키도 그래요. 예쁘고 곧은 선은 아니지만, 강렬하고 힘차잖아요. 열정이 보이잖아요. 붓을 써서 더 역동적이고.

석창우 누드 크로키는 서양에서 왔지만 우리나라 것으로 접목시켜보고 싶어서 먹하고 서예 질감을 넣어서 한국화한 것이예요. 처음 누드 크로키를 할 당시, 붓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붓을 쓰는 사람이 있어도, 바깥 테두리를 그리는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때 효봉 선생님께서 서예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필휘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서예는 다시 가필을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자, 싶었죠. 일단 연필 같은 서양 재료를 써서 하고 그게 익숙해져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때까지는 먹에 손을 안 댄다고 결심했어요. 서양 재료를 써서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 내가 계속 써왔던 먹은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6, 7년 쯤 지나고 1997년, 우연한 기회에 포스코미술관에서 <자연과 추상>이란 5인의 전시에 초대되었는데 저는 인체로 작품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누드를 원했는데 누드를 연필로 하면 약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됐나보다 싶어서 붓을 잡은 거죠. 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고기가 물 만난 식으로 그냥 막 되더라고요.

여태명 다른 크로키 하는 사람들도 붓으로 해보지만, 필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필력은 붓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단지 형태, 모델의 몸짓이나 그런 것만 표현해내는 거지요. 붓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없단 말입니다. 형태만으로는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림의 느낌과 감에서 오는 감동은 떨어진다 이거죠. 석 선생에게는 필력이 있으니까 훨씬 더 힘 있는, 또 무게 있는 감동을 줘요. 아무나 이 힘이 나오지 않거든. 그게 석 선생의 강점이에요.

석창우 효봉 선생님은 계속 제 칭찬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선생님이 다양하게 창의적인 여러 가지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느끼고 응용한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이면 거쳐야 할 고민을 거치지 않고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그걸 석창우화한 거죠. 다른 외국 것을 끌어들이어서 한국화하듯, 저의 작업들은 효봉 선생님의 작업 정신을 받아서 석창우화한 것입니다.

여태명 저는 석 선생을 제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얘기하고 이루고 공부하는 거지. 우리는 항상 서로 이끌어줘요. 내 쪽으로 억지로 끌고오는 건 솔직히 되는 게 아니예요. 결국 자신을 가꾸고 자신과 싸우는 거지.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고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간다고요. 그것과의 싸움이거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 어떤 화두, 자기가 추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온갖 것들. 오늘은 이것과 막 싸우고 있는데 내일은 또 저것과 싸우고. 그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 고민과 고뇌가 예술 작업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석창우 모든 걸 자신과 주변에서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소재가 없다고 고민하는데, 사실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 물론 자기가 지극히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하지만요.

여태명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하고 소통을 안 해서 그래요. 사람이 눈 뜨고 숨 쉰다고 살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산다함은 뭔가 사유하고 고민하고, 그런 사유와 고민이 소통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소재가 없다, 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야 해요. 예술의 경우, 자꾸 생활예술로 가고 있는 것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술 역시 사회와 소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 박물관 지하창고에 쌓여 있는 죽은 그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살아 있는 그림이 되려면 지하창고에서 나와서 전시가 되든지, 우리 생활에서 소통되고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유리 안에 갇힌 작품만 작품이 아니에요. 유리를 깨고 나와서 우리와 같이 어우러져서 판이 되든지, 마당이 되든지 해야죠.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수많은 편견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장애의 벽과 싸우는 과정일지 모른다. 하지만 석창우는 이미 장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는 누가 팔을 붙여준다고 해도 거절할 거라며 웃는 그의 지난 20여 년의 시간 속에는, 분명 남들과는 다른 고통과 인내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단점이 바로 장점이다’라며 꾸준히 그를 지켜본 여태명 선생의 애정과 격려가 있다.

석창우 예술계에서 장애예술가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판에 끼워주고 안 끼워주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처음부터 굳이 장애 예술가들과 따로 어울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비장애인과 동화되어서 그런지 편견 같은 게 없는 편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같은 조건에서는 내가 더 유리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보면 그 울타리는 자기가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품성이 있는 장애인 미술그룹의 사람들에게 울타리에 얽매이지 말고 나오라고 말해요. 전시할 때도 일부러 비장애인들의 전시에 참가하라고 연결해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예술가가 거의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 활동을 계속 못 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스스로 못 움직이니깐 비장애인에 비하면 두세 배 이상 비용이 들어가요. 자기가 직접 못 하는 것은 남을 고용해야

하니깐요.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받지만요. 하지만 일단 절실한 의지만 있으면 달라져요. 사실 저도 경제적으로 윤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집에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전시를 추진하곤 했는데, 하다보니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니 미술계에서 그 자체를 느끼고 좋게 봐준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꼭 비용을 안 내고도 초대전을 계속 할 수 있더라고요. 내 틀을 안 만들고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열심히 의지를 갖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요즘엔 일반 작가들과 동화되어 편견 없이 같이 작업하는 장애인 작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울타리를 치고 있을 때 외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동화됐을 때 보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물론 사회의 편견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생각을 바꾸고 노력하다보면 괜찮아지리라 믿어요.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 효봉 선생님을 못 만났으면 저도 지금처럼 제 것을 쉽게 찾지는 못 했을 겁니다. 난관이 닦혔을 때 선생님이 해결책을 주시고, 고비마다 같이 힘써 보살펴 주셔서 더 내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분이에요. 스승을 잘 만나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서예하는 사람들은 날 무지하게 부러워해요. 제 경우처럼 장애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 같아요. 결국 극복 대상은 본인입니다. 신체뿐 아니라 누구든지 장애는 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기가 더 정열적으로 더 즐기면서 해서 그런 소리를 못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단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절대 발전을 못 하거든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작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장애인 작가들이 서너 배는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똑같아져요. 오히려 똑같아졌을 때는 그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죠. 그건 자신이 즐겨 작업하고 동화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니까.

여태명 맞아요. 사실은 누가 장애인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석 선생과 같은 장애인 작가가 예술을 표현하는 걸 보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여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장애를 발전시켰을 때는 큰 장점이란 말이지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걸 가졌거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술의 가장 중점적인 것이고 기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단지 석 선생은 내가 갖고 있는 기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과는 행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니가 장애, 장애, 하는 거죠. 손은 하나의 도구, 용구의 차원이지만 사실 그림은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손을 움직이고, 손이 붓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석창우 처음에 효봉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단점이 장점으로 승화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온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손목, 손가락의 기교를 못 하니가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선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선의 질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 장애가 완전히 장점이 되니까 정말 아무도 쉽게 못 따라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팔을 잘라서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흉내도 못 내죠. 그래서야 ‘아, 이게 단점이지만 결국은 내 장점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단점이 장점이 됐을 때는 단점의 몇 십 배를 한다는 걸 알게 됐지요.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해요. 옆에서 다 이것저것 해주고 먹여주고 하잖아요. (웃음) 그런 데다가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걸 하고 있으니까 엄청 행복하지요. 옛날에 누가 서예로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지지자불여호지자 호지자불여락지자(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알고 있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뭘 하든지 간에 즐기면서 하니가 상당히 괜찮던데, 그걸 딱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지금 손 준다고 하면 싫다고 해요.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성격도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 있을 때는 매사에 부정적인 게 많았는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사고 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보통은 생활하는 데 손이 거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해요. 처음에는 숨 쉬는 것밖에 못 했어요. 누가 먹여주면 먹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다 해줬어요. 그러다가 손이 있을 때 할 수 있던 걸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새로 찾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찾은 건 맥주병 따는 거지만. (웃음) 그렇게 하나하나 찾는 재미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석창우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는 여러 차례의 개인전과 해외 초청전을 연 유명 작가의 대열에 올라 있지만 지금도 자기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작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세계를 바라본다. 요즘은 경륜장에 나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곧 인사동에서 열릴 19회 개인전을 준비 중이다. 여태명 역시 마찬가지다. 손 꼽히는 서예가로 대학 강단에 서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자디자인 연구소에서 문자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석창우 요즘에는 광명 돔 경륜장에 나가서 그리고 있어요. 제 그림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기 좋거든요. 내년엔 전시를 하자고 해서 경륜하는 모습을 그리죠.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각 나라를 다니면서 개인전을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룹전은 여러 번 했지만 개인전은 미국에서 두 번, 독일 두 번, 영국, 프랑스에서 했어요. 그런데 세계에 100나라가 넘잖아요. 많은 나라에서 해보고 싶어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제 본명은 석순기였는데 석창우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거든요. 같이 누드 크로키를 하던 사람 중에 성명학을 하던 사람이 나보고 이름 한번 바꿔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석순기(石舜基) 같은 경우 동양적이고 한계가 좁아지는 느낌인데, ‘넓을 창(敞)’ 자는 세계적인 뜻이잖아요. 마치 성경 속에서 씨족의 아버지인 ‘아브람’이 세계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저도 세계를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름이 석창우(石敞宇)가 된 겁니다.

여태명 저는 요새 문자디자인 연구소를 하고 있어요. 제품이나 회사 로고를 만드는 일부터 폰트도 연구하고 개발하고. 문자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서예니까 문자로서 사회와 소통하는 것이죠. 미술대학 서예과에 소속되어 있는 제자들과 후배들에게는 마땅히 사회에 진출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폭을 넓히고 확장해야 해요. 그런 뜻에서 문자디자인 연구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예나 미술을 하는 분들께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석창우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화폭에 가둬놓지 말아라, 무엇이 됐든지 확장하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자꾸만 화폭에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화폭에 머리를 넣으면 다리까지 다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뒤틀어서 넣어도 되고 달랑 코빼기만 하나 있어도 되잖아요. 첫눈에 들어오는 것도 감상이지만, 계속 보면서 이 그림이 뭘 표현한 건지 알아가는 것도 곧 감상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재미도 있고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석 선생 작품 보면 예쁘고 멀끔하게 눈에 잘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역동적이고 보기 좋잖아요. 사실은 예쁘다고 하는 것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예쁜 것은 껍데기지, 아름다운 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지. 석 선생 그림이 예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가 느껴지는 것, 아름답음.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이예요. 오늘 참 좋네요. 정말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습니다.

석창우 저도 원래 이 인터뷰 섭외 들어왔을 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장애 작가를 소개해 준다고 했죠. 사실 언론의 조명을 못 받고 노력하는 장애예술가가 많거든요. 그러다 내가 효봉 선생님하고 인터뷰하게 해주면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만나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해요.

2007년 7월 26일 목요일 오후 석창우 화백 작업실에서